A PLEDGE FOR MORAL DEFIANCE

권위주의라는 위기에 관한 미국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 서한

2026년을 살아가는 미국의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는 저마다 속한 다양한 신앙 전통의 가르침에 따라 한목소리로 선언합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이 부패한 이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이념은 우리를 중대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신앙을 사랑하기에, 미국에서 발흥하는 권위주의에 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의무입니다.

참된 예배는 공적 저항을 요구합니다.

폭정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배교에 가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위주의에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가 초래하는 위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고자 이 글을 씁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주권 국가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빈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유색인종, 소수 특권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집요하고 치밀하며 악의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권위주의적 정책이 조장하는 공포가 사람들의 시야를 협소하게 만들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폭력적인 행동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폭력을 집행하는 이들조차 그 과정에서 도덕적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을 전인격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에 우리는 권위주의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권위주의가 과거의 똑같은 모습의 권위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다짐하면서 권위주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상은 히틀러와 스탈린, 피노체트와 폴 포트, 불 카너와 앤드루 잭슨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달라진 권위주의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특수한 도전과 유혹, 특히 그 도전과 유혹에 내재한 그 영적이며 종교적인 차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위협을 이해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권위주의의 부상에 공모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는 그저 외부에서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는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 안에서 지배적인 종교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권위주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십자가를 치켜든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역시, 목소리 큰 소수가 공적인 삶의 도덕적 서사를 가로채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사화(私事化)된 신앙은 죽은 종교와 다름없다고 단호히 선언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미국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실험은 서로 다른 신앙 전통에 속한 우리가 공간과 권력을 함께 나눌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미국의 헌법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 이들은 주로 소수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국가가 강요한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전통을 실천할 (혹은 실천하지 않을)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그들의 확고한 주장은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공적 삶에서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고, 한목소리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이 공동 서신을 발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종교 전통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폭넓은 정치적 관점을 아우르는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문제는 좌파와 우파의 문제(right versus left)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right versus wrong)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파를 초월한 정치 참여에 함께 헌신합니다. 세계 곳곳을 살펴보면, 우익 권위주의와 좌익 권위주의 운동 모두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동일한 정치나 동일한 신앙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위주의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우리 국가의 영혼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확산되는 권위주의에 반대합니다.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일들—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행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위주의가 초래하는 위험의 실체를 밝히고, 우리의 책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닌 힘을 다시 기억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식은 중요하며,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들의 선택은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 전통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구원을 약속하는 정치 운동의 요구에 굴복하는 순간 인간성의 본질을 이루는 무언가를 상실하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이 공동 서신을 통해, 우리는 권위주의가 초래하는 위기 앞에서 도덕적으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인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이러한 다짐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다짐에 동참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가 함께 배우고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 작성한 이 문서를 가르침과 대화, 성찰, 공동 행동을 이끌어 내는 촉매제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덕적 저항의 서약

신앙과 양심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는 참된 예배가 권위주의에 대한 공적인 저항과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에 인도를 받아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어떤 정치 이념이나 지도자에게도 나의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침묵과 공모를 회개하며, 사사화된 종교가 죽은 종교임을 인정합니다.

다양한 전통에 속한 이들과 연대하여 폭력적이며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 독려, 투표자 보호, 선거 기반 시설 지원을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삼고 이웃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 내에서 신앙을 실천할—혹은 실천하지 않을—자유를 계속 누리도록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겠습니다.

나는 권위주의에 신실하게 저항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최초 서명자

여기에서 서명에 동참하십시오. www.moraldefiance.org

Rev. Dr. SanDawna Gaulman Ashley
미국장로교(PC(USA)) 북동부 대회 지도자

Nihad Awad
미국-이슬람 관계 위원회(CAIR) 사무총장

Bishop William J. Barber, II
Repairers of the Breach 회장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공공신학 및 공공정책 연구소 소장

Venerable Bikkhu Bodhi
미국불교협회 회장

Rev. Thomas L. Bowen
진보 미국침례교총회 사무총장

Shane Claiborne
Red Letter Christians 대표

Rev. Dr. Jennifer Copeland
노스캐롤라이나 교회협의회 사무총장

Rev. Laura Everett
매사추세츠 교회협의회 사무총장

Rev. Dr. Willie Dwayne Francois III
진보적 전국침례교협의회 제2부회장

Rev. Juan L. Garcia
버지니아 주 뉴포트 뉴스 제일침례교회(Primera Iglesia Bautista) 담임목사

Rev. Darrell L. Goodwin
연합그리스도교회 남부 뉴잉글랜드 협의회 사무총장 겸 대표

Rev. Lucas Grubbs
뉴멕시코 교회협의회 사무총장

Elder Suzanne P. Kelly
미네소타 교회협의회 대표

The Rev. Stephanie Kendell
내셔널 시티 크리스천 처치 앤드 파운데이션 담임목사 겸 대표

Jeremy Langill
로드 아일랜드 주 교회협의회 대표

Rev. Dr. Alvin O'Neal Jackson
Jax II Initiative, LLC 대표

Rev. Carlos L. Malavé
라티노 그리스도인 전국 네트워크 대표

Rev. Dr. Russell Meyer
플로리다 교회협의회 대표

Rev. Jihyun Oh
미국장로교(PC(USA)) 총회 서기 및 신앙사역국 상임대표

Frank J. So
오리건 주 에큐메니컬 미니스트리즈 대표

Rev. Teresa "Terri" Hord Owens
미국 및 캐나다 그리스도 교회(제자회)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대표

Rev. Dr. Kerri Parker
위스콘신 교회협의회 대표

Rev. Dr. Rick Schlosser
캘리포니아 교회협의회 대표

Katie Sexton
애리조나 신앙 네트워크 대표

Rev. Adam Taylor
소저너스(Sojourners) 및 소조 액션(Sojo Action) 대표

Rev. Dr. Karen Georgia Thompson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총회장 겸 대표

Phillip Veatch & Noah Bishop Merrill
친우회(퀘이커) 뉴잉글랜드 연회 의장 및 서기

Rev. Jonathan Wilson-Hartgrove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공공신학과 공공정책 연구소 부소장
Repairers of the Breach 이사회 의장

우리가 겪는 위기의 실체를 드러내며

2026년, 미국의 수도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 달라졌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우리의 핵심 인사들이 워싱턴 디시에서 모였을 때, 우리는 제복을 입은 주방위군 병력들이 거리와 공원을 순찰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백악관은 임시 울타리와 방벽으로 둘러싸여 비상사태가 벌어진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연방정부 건물에는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내세운 선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전체주의 체제의 종신 통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징후는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고 전쟁을 선포할 의회의 권한을 무시했고, 의회 지도부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묵인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투표권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으며, 주 의회는 이에 호응하듯 미국 남부에서 흑인과 라틴계 의원들의 의석을 빼앗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자행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법무장관에 임명되었으며, 법무부는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고, 대신 현 정권이 정적으로 여기는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적인 구금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의 법 집행 기관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독재적 관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마저도 “양쪽의 입장”을 모두 보도하려는 언론을 통해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에 관한 소식을 접합니다.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진실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그 여파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우리 동네와 성스러운 공간을 급습해 적법한 절차도 없이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과격한 조치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던 이웃들은 거리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치솟는 현실 또한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와중에,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식료품 지원에 의존하는 가족들은 그 혜택마저 잃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야 비로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2025년 의회를 통과해 2026년부터 각 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연방 예산 삭감의 결과로 보험 혜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대다수 미국인이 충격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리는 공공 재원이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노골적인 부패와,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이 공직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금빛으로 치장한 대통령 집무실을 배경으로 펼쳐진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는 기이하기만 합니다. 그 성대한 연출은 오히려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의 외적인 징후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에 관해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당파적이라는 비난을 받거나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실천해왔고, 그 원칙에 따라 우리는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삼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건전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서 분명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권위주의 운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학대를 일삼는 배우자가 상담 시간을 자기 뜻대로 좌우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위원회 회의를 제멋대로 장악하는 것처럼, 권위주의는 스스로 진실의 최종 심판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짓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을 악마화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구성하는 이러한 기초적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으로서 거짓말에 맞서야 합니다. 2020년 대선은 부정하게 도둑맞은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이민자들은 우리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범죄자와 강간범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리는 짐이 아닙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를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초래한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줄 강력한 통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의 내적 징후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거짓말이 일상화되면, 모든 영역에서 진실을 알아내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부 최고위층에서 부패가 버젓이 자행되면, 아이들에게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왜 잘못인지 설명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공적인 인물들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유로 그를 모욕하면,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마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금의 위기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 등장한 권위주의 운동의 일관된

양상으로서, 기존 정치 규범을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해악을 끼칩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는 공동의 실천을 가로막습니다. 진실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경계마저 흐리려 합니다. 권위주의자들은 우리가 진실을 규정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유럽에서 나치와 맞서 싸웠고, 자유의 이름으로 냉전을 치렀으며, 권위주의 체제에 맞선 반체제 인사들을 칭송해 온 나라가 어째서 정작 우리 한복판에서 권위주의 운동이 부상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지도 못했을까요? 이 이념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셈입니다. 물론 많은 미국인이 권위주의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념이 퍼뜨린 거짓과 선동은 우리 유럽계 선조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그들을 부추겼으며, 그 결과는 우리 원주민 선조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라 부르는 인종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권위주의는 인종을 근거로 한 동산 노예제(chattel slavery)를 정당화했습니다. 미국은 이 제도를 발판 삼아 경제력을 키웠고,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열강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1930년대, 짐 크로우 법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나치 법률가 대표단조차 인종적 순수성을 판별하는 이른바 “한 방울” 규칙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권위주의가 21세기에 우리 정부의 제도와 수단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념은 언제나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1940년대 나치의 패망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팽창을 정당화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사상과 인종 분리를 합리화한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논리는, 나치의 팽창주의를 뒷받침한 생활권(Lebensraum) 이념과 반유대주의를 제도화한 뉘른베르크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저항하고자 하는 이 이념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과 2020년대 미국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권위주의 운동이 선거를 통해 정부를 장악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3는 여기서 설명한 권위주의적인 조치들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퍼뜨린 거짓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안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933년 독일의 여론도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가 집권했을 당시 독일인의 2/3는 나치의 극단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주의자들은 다수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권력을 장악한 뒤, 국가의 제도와 권력 수단을 동원해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포획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도덕적 운동을 통해 우리 정부의 제도적 수단을 되찾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현재 우리 정부를 장악한 것과 같은 운동들이 일관되게 위협을 조성하고, 스스로를 구원자로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도덕적 권위를 주장한다고 지적합니다. 권위주의자들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수호자라고 자처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연합 세력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권위주의자들은 제도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며, 이를 비상조치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권위주의는 다른 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특정 이웃들에게 돌리고, 우리 중에서 낙인찍힌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한 극단적 조치가 신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문화적, 종교적 운동에서 동력을 얻습니다. 이민자와 원주민 공동체,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 퀴어와 트랜스젠더, 가난한 이들, 일부 여성, 장애가 있는 이웃을 겨냥한 폭력적인 공격은 권위주의 운동이 그저 묵인하는 일탈 행위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자들은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그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는 이 권위주의 운동의 핵심에 종교가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사회학자들이 관찰을 통해 설명하는 현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의 도덕적 상상력을 형성하며,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묶어주는 힘을 지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권위주의는 정부를 장악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종교적 국가주의는 그것이 부추겨 온 권위주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 안에 존재해왔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성전을 벌였던 청교도부터 노예들에게 노예주의 종교를 가르쳤던 사제에 이르기까지 종교는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특별한 위기를 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초래한 현재의 위기는 1970년대 민권, 인권 운동에 저항했던 이들을 인종이 아니라 종교를 중심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 운동을 구축하려 했던 단체들에 의해 촉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관과 지도자들이 이 전략의 실체를 드러내고, 도덕적 의무로서 이에 맞서며, 우리 공동체의 삶을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적인 도덕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너무 늦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정치 운동이 조장하는 이념의 확산을 분석하면서 이를 "기독교 국가주의"와 "백인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이념이 백인성이라는 전제와 기독교 신앙의 문화적 상징을 동원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을 선포하겠다고 서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주의 이념이 우리 전통의 언어와 상징을 가로챘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기독교 국가주의는 이단입니다. 기독교 국가주의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타락시키며,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오용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전통을 대변하는 우리 역시 우리의 종교 전통이 이러한 조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다수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종교적 국가주의의 논리에 끌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흑인과 라틴계, 아시아계, 원주민과 혼혈인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든 우리 역시 백인성의 습관을 받아들이게 하는 종교적 국가주의의 문화적 호소력에 이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을 간과할 때가 많지만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 국가주의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함께 고백합니다.

종교적 국가주의가 이토록 끈질기게 지속되고 다양한 공동체에 강한 호소력을 발휘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힘의 원천에 대해 더 깊이 질문해야 합니다. 중독자가 자신을 해치는 무언가에 끌리는 모습에서 인간의 깊은 갈망을 엿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를 부추기는 종교적 국가주의가 부상이 의미를 갈망하는 우리 시대의 독특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미국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살과 약물 과다복용, 자해에 관한 통계는 절망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대 수명의 증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의 발전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어째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이토록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 온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적 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지표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왔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은 계속 증가했지만, 경제적 성과 가운데 우리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몫은 오히려 줄었고, 극소수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분노와 원망을 키웁니다. 양당 정치인들이 우리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을 텅 비게 만드는 정책을 지지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모두의 전통이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언자적으로 도전하고 그들이 이러한 소명을 실천하도록 고무하는 데 실패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맞서고, 그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초당파적 신자유주의적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오르려고 애쓰는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중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정치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언자적 연합을 구축하는 일은 소홀히 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과 관계를 만드는 데 힘쓰는 동안,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소명을 되찾고,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기억하며

현재의 위기에 우리도 공모했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이 위기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더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는 도덕적 저항에 힘을 보탤 역량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전통과 그 안에 깃든 지혜를 바탕으로, 한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되새기고 공공 신학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유대교에서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뜻의 티쿤 올람이라는 개념은 공공 신학을 위한 오래된 틀을 제공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거룩함을 사회가 가장 약한 이들, 곧 과부와 고아,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연결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은 공적 정의와 분리된 의례적인 금식이나 종교적 실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신명기에서는 같은 가치를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우리의 모든 종교 전통은 민주주의 이전의 세계에서 형성되었지만, 이 나라 역사에서 더 완전한 연합을 지향하는 모든 도덕적 운동의 토대가 된 원형적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핵심 서사는 다르지만, 각 전통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 인간 실존의 기초를 이루는 선택과 양심의 자유, 법치에 대한 존중, 창조 세계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낯선 이를 환대하는 태도, 공동선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일을 할 때 신성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공유합니다.

흑인 공동체의 예언자적 전통에서는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의로움을 분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노예 소유주들의 종교적 국가주의라는 이단적 타협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특히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더 폭넓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초기 기독교의 교부와 교모들은 복음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구조적으로 고착된 탐욕과 부의 독점, 국가가 승인한 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구조적 해방을 선언하시며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카이사레이아의 바실레이오스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대가 움켜쥐고 있는 빵은 굶주린 사람의 것이고, 그대가 잠긴 옷장 안에 넣어둔 외투는 헐벗은 사람의 것입니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셈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대 자신의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사막 교모인 마크리나 역시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경제적 질서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누구도 '우리 집'이나 '우리 재산'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이나 '우리의 공동체'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이 자연의 올바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선은 개인의 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가난에 빠뜨리는 정책에 맞설 힘을

줍니다. 소수는 극단적인 부를 축적하고, 불의한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거짓말은 그들에게 우월감마저 심어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런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이슬람의 근본 서사는 7세기 메카의 지배 엘리트들이 구축한 약탈적 사회 구조에 맞선 공적 봉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쿠란에서는 정의와 억압의 근절을 공적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영적 의무로 규정합니다. 수라 안 니사에서는 공적 정의에 대한 헌신이 가족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이여, 너희 자신이나 부모나 친척에게 불리하더라도 정의를 굳게 지키며 알라를 위한 증인이 되라." 수라 알 마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을 외면하는 신앙을 거짓 종교로 규정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부인하는 자를 보았느냐? 그는 고아를 내쫓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는 일을 장려하지 않는 자다." 이슬람에서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자본이 부유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부유세 제도를 시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수라 알 하슈르에서 가르치듯, 재화는 "너희 가운데 부유한 자들 사이에서만 계속 분배되지 않도록" 유통되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에서 창조주이자 생명의 수여자인 존재는 모든 생명체와 산과 물이 저마다 절대적 신성함을 지닌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땅은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기도와 공동체의 조화가 깃든 살아있는 성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오크 플랫(Oak Flat)의 아파치 스트롱홀드(Apache Stronghold)와 스탠딩 락(Standing Rock)의 물 수호자들(Water Protectors)이 보여 주었듯이, 신성한 공간을 파괴하는 권위주의적 행위는 생명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지역 생태계를 지키고, 올바른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존중하며, 기업의 탐욕이 신성한 것을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는 영적 무법 상태에 맞서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신비와 경이를 인정하며,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 세력에 저항하도록 촉구합니다.

권위주의가 작동하는 구조적 역학은 미국의 공적 삶을 규정하는 근본 문서들이 천명한 민주적 통치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는 이 문서들을 신성시하지 않지만, 이 문서들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언어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전문에서는 연방을 수립하는 목적을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권위주의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의도적으로 전복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복지"를 억만장자 엘리트의 이익으로 대체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무너뜨리며, 사회적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내의 평안”을 파괴합니다.

국가가 이러한 근본 윤리를 저버리면 스스로 실존적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노예제의 폐해에 깊이 연루되었던 과오에도 불구하고, 토머스 제퍼슨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가 신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지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며, 그분의 정의가 영원히 잠들어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나라를 걱정하면서 떨지 않을 수 없다.” 훗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는 이 경고를 되풀이하며 그 의미를 한층 더 심화했습니다. 그는 인종주의, 경제적 착취, 군사주의라는 삼중적 악을 통해 미국의 근본적인 실패를 진단했습니다. 동료 종교인과 민권 운동의 동지들에게조차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던 바로 그 때, 킹 박사는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채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나라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부를 활용해 빈곤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악에 맞서 싸우려면 국가가 승인한 폭력과 전쟁을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킹 박사는 예언자적 소명에 순종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아내 코레타 스캇 킹은 그가 암살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남편의 예언자적 비판을 이어받아 미국의 우선순위에 내재한 구조적 폭력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폭력의 정의는 지금까지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는 1968년 가난한 이들의 행진 연대의 날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은 폭력입니다. 아이를 굶기는 것은 폭력입니다. 문화를 억압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노동자를 차별하는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빈민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폭력입니다. 의료적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평등을 멸시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인류를 돕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것은 병들고 사악한 형태의 폭력입니다.”

권위주의가 도를 넘어서는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인류 역사는 그보다 더 큰 운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오도어 파커가 처음 천명하고 킹 박사가 널리 알린 이 영원한 영적 진리는 이러합니다. “도덕적 우주의 궤적은 길지만, 정의를 향해 휘어져 있다.” 그러나 이 도덕적 궤적은 저절로 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그 궤적을 휘게 해야 합니다. 더 완벽한 연합을 향한 전진을 위해서는 신앙 지도자들의 의도적인 헌신, 예언자적인 조직 활동가들의 용기, 윤리적인 선출 공직자들의 강직함,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변화를 실현해 내는 시민 연대의 끈질긴 압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 강력한 공공 신학을 뒷받침할 풍성한 도덕적, 영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되찾고, 그 가르침을 되살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물리적 공간이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에 맞서 싸워 온 운동의 중요한 기반이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신앙 공동체가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운동의 거점이 되고,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용기를 북돋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음을 새롭게 깨닫고,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우리의 공간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기꺼이 환영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 함께 공적 광장으로 나아가 조직하고, 시민의 공간을 지켜내며,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참된 해방은 고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과 인종,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역할을 혼자서, 혹은 우리만의 울타리 안에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른 신앙인과 다른 직종의 사람들,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 인권 단체, 상호부조 조직과 연대해 함께 일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도덕적 운동을 일으킨 노예제 폐지론자들과 그들과 함께 투쟁했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노동운동과 20세기의 비폭력 투쟁에서 교훈을 얻으며, 영혼의 힘을 일깨우고 분할과 지배의 전략에 맞서는 연대를 구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연대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실현할 공간을 마련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변화를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관철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맬컴 엑스, 소저너 트루스와 마더 존스, 엘라 베이커와 하비 밀크, 물 수호자들과 도덕적 월요일 운동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선조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닌 도덕적 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선언합니다.

행동을 다짐하며

우리는 이 풍성한 전통과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 신실하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실천 지침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항의하며,

행진하고 조직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연대의 힘을 모으며,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고 창의적인 돌봄을 실천하며,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가 초래한 지금의 위기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여러 지역과 미국 남부의 권위주의 운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위주의 세력이 정부의 제도적 수단을 장악한 뒤에도 민주주의의 침식을 저지하고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적 규범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권위주의 세력의 일관된 전략은 모든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공적 항의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비폭력적 행동의 수단을 최대한 실천하겠다고 함께 다짐합니다.

우리는 감시와 괴롭힘, 인신공격, 선택적 기소, 단체를 겨냥한 조사, 허위정보 유포 등이 권위주의 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표적이 된 사람들의 행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심어 스스로 굴복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침묵시킬 수 없다면, 권위주의 정권은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이며,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있지 못할 때에도 굳건한 연대로 서로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어떤 형태의 강압이나 폭력보다 강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저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 전통이 가르치는 지혜이자, 지난 세기에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에 성공했던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폭력적인 정책과 이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이들에 맞서기 위해 모든 비폭력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는 이 운동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음에도 그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자신들이 꿈꾸는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리려고 하신다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이념에서 벗어나 구원받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서 그들이 남용해온 권력을 빼앗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알코올 중독자를 통제하는 술병에서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듯이, 우리는 미국 권위주의의 지도자들을 우리 사회의 권력 중심부에서 격리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료보험을 잃어버린 가정들과 미국 영토 내 집단 수용 시설과 세계 곳곳의 비밀 구금 시설에 사랑하는 이들을 빼앗긴 가정을 돌보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단체가 지닌 모든 자원을 동원해, 권위주의 정권의 정책적 폭력에 짓눌리고 있는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 신학은, 종교 공동체는 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정치인은 정책을 만드는 일에만 관여해야 한다는 거짓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들에게 청원하고, 입법자들을 가르치며, 지도자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실천으로서 정의를 행하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권력자들이 듣기를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정의로운 공공 정책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호소를 끈질기게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행에 맞서 항의하고 모두에게 정의의 실천을 촉구하는 일을 외면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공적 부패를 견제하고, 부유한 개인과 기업이 정당한 몫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의료와 주거를 기본적인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의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돌보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필요하고 불의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 또한 이 도덕적 의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당과 공직 후보자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 국민을 섬기도록 선출된 이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파 정치 세력이 연방정부를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의 수가 어느 후보에게든 투표한 유권자의 수보다 많다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서는, 투표가 자신의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선거 참여를 포기한 시민들을 다시 설득하고 투표장으로 이끄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의 권위주의 운동은 일단 정부의 제도적 수단을 장악하면, 선거 결과를 뒤집어서라도 반드시 그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부정 투표에 관한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연방정부는 각 주의 유권자 명부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연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권자 등록, 투표 참여 독려, 투표권 보호, 선거 기반 시설 지원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한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투표소 선거사무원으로 자원봉사할 것을 권하고, 그들이 이 중요한 책무를 맡기 위해 나설 때

기꺼이 축복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유권자 등록 행사를 열고,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벌이며, 투표소까지 행진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투표가 신성한 행위임을 선포하고,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위협을 받거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에 이러한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른 길이 가능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당장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즉시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증거가 있더라도, 신앙은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을 형성합니다. 권위주의의 요구에 굴복하는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을 수 없기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승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이념을 거부하는 우리는 우리가 반대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결국 그 대상과 똑같은 존재로 변해 버리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권위주의에 맞서 신실한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 주시기를 하늘과 거룩한 모든 것에게 호소합니다.